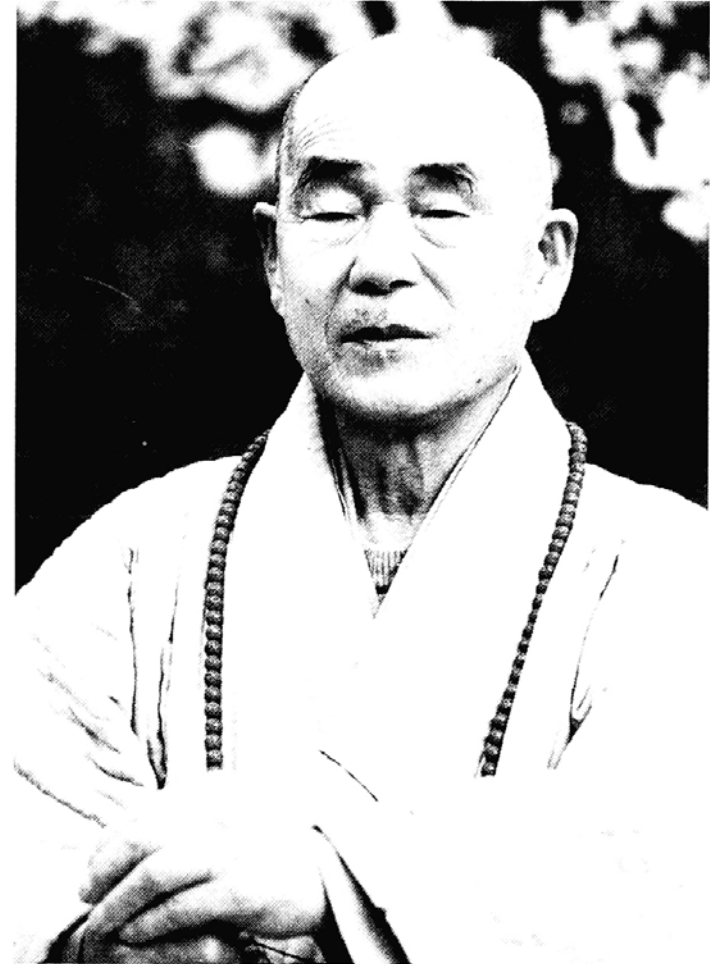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옥토라도 잡초 우거지면

춘명스님 (김제 원각사 조실)



- 1918년 전북 김제 생
- 1927년 송광사에서 연성스님을 은사도 득도
- 1943년 전북불교연합회관에서 대교과 수료
- 1945년 일본 임제대학 졸업
- 1961년 조계종 전북교구 교무국장
- 1979년 화엄종 전북 중무원장
- 現 태고종 승정
- 저서 <불교인의 인생관> 등

“급할때만 부처님 찾으면
그것도 욕심일 수 있어요
언제나 무조건 믿고 기도하세요

공부를 지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절을 나와 1년동안 만행을 다녔습니다. 대교과 공부를 더 하려면 1년 양식은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이 일 저 일 하면서 돌아다녔지요. 그런 후에 찾아 간 곳이 합정도 원산 석왕사였습니다. 대승사 감사스님이었던 성주스님이 그 곳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이지요. 그 곳에서 공부를 했지만 양식이 떨어져 1년이 채 못되어 결국 절을 떠나야 했습니다.

공부를 지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절을 나와 1년동안 만행을 다녔습니다. 대교과 공부를 더 하려면 1년 양식은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이 일 저 일 하면서 돌아다녔지요. 그런 후에 찾아 간 곳이 합정도 원산 석왕사였습니다. 대승사 감사스님이었던 성주스님이 그 곳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이지요. 그 곳에서 공부를 했지만 양식이 떨어져 1년이 채 못되어 결국 절을 떠나야 했습니다.

공부를 지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절을 나와 1년동안 만행을 다녔습니다. 대교과 공부를 더 하려면 1년 양식은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이 일 저 일 하면서 돌아다녔지요. 그런 후에 찾아 간 곳이 합정도 원산 석왕사였습니다. 대승사 감사스님이었던 성주스님이 그 곳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이지요. 그 곳에서 공부를 했지만 양식이 떨어져 1년이 채 못되어 결국 절을 떠나야 했습니다.

공부를 지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절을 나와 1년동안 만행을 다녔습니다. 대교과 공부를 더 하려면 1년 양식은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이 일 저 일 하면서 돌아다녔지요. 그런 후에 찾아 간 곳이 합정도 원산 석왕사였습니다. 대승사 감사스님이었던 성주스님이 그 곳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이지요. 그 곳에서 공부를 했지만 양식이 떨어져 1년이 채 못되어 결국 절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⑬

· 只生死未息時 亦非實有
지 생사미식시 역비실유
以妄認生死有 故經云 善男子
이망인생사유 고경은 선남자
一切衆生 從無始來
일체중생 종무시래
種種顛倒 如迷人 四方易處
종종전도 여미인 사방역처
妄認四大 爲自相 六塵緣影
망인사대 위자신상 육진연영
爲自心相 譬彼狂目 見空中花
위자신상 비피병목 견공중화
乃至如來空花 滅於虛空
乃至如來空花 멸어허공
不可說言有定滅
불가설언유정멸
處 何以故 無生處故 一切衆生
처 하이고 무생처고 일체중생
於無生中 妄見生滅
어무생중 망견생멸
是故說名輪轉生死
시고설명운전생사

위심마괴생사지소유 문수운
其力未放故 後有進山主
기력미충고 후유진산주
問修山主云 明知
문수산주운 명지
生是不生之法 爲甚麼却被生死之所流
생사불생지법 위심마괴생사지소유
修云 罪畢竟成竹去 如今作筏使得塵
수운 수필경성숙거 여금작발사득마
所以知無生死 不如隨無生
소이주무생사 불여제무생
死 體無生死 不如契無生死 契無生死
사 제무생사 불여제무생사 계무생사
不如用無生死 今人尙不知無生死
불여용무생사 금인상부지무생사
況體無生死 契無生死 用無生
況체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
死耶 故認生死者 不信無生死法
사야 고인생사자 불심무생사법
不亦宜乎
불여의호

이 경문에 의하면 진실로 알아야 한다. 원각의 진심을 깨달으면 본래 생사가 없는데 이제 생사가 없음을 알고서도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공부 가 도달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생과 사가 본래 없음을 알고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공부 부족한 탓

는 과거로부터 온갖 일에 잘못 생각한 이 마치 흥미한 사람이 사방의 처소를 혼동하는 것과 같이 망령되어 사대(四大)를 자신의 모습으로 삼고, 육진(六塵)의 인연으로 생긴 그림자를 자기 마음의 형상으로 삼는다. 비유하자면 병든 눈으로 허공의 꽃을 보았고 내지 온갖 허공의 꽃이 그 허공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사라진 꽃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까 같다. 왜냐하면 원래 생겨난 꽃이 없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들은 생겨남이 없는 데에서 망령되어 생멸을 보고 있다. 이런 때문에 이들을 생사에서 윤회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로 교설(敎說)에 보면 암바(마갈다국)의 왕비의 한 사람이라는 여자가 문수 보살에게 물기를 “생(生)이 곧 생이 아닌 법을 분명히 알았다면 무엇 때문에 생사의 흐름을 받고 있느냐” 하자 문수보살께서 “힘이 충분치 않아서 그렇다.” 하셨다. 그 뒤에 진산주가 수산주에게 물기를 “생이 곧 생이 아닌 법을 분명히 알았다면 무엇 때문에 생사의 흐름을 받습니까” 하자, 수산주는 “죽음을 반드시 대나무가 되지만 지금 당장 뱀으로써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셨다. 이런 때문에 생사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생사가 없음을 체득할 만 못하고, 생사가 없음을 체득하는 것은 생사가 없음에 결합(契合)하는 것만 못하고, 생사가 없음에 결합하는 것은 생사가 없음을 활용하는 것만 못하고. 그런데 요즘 사람은 생사가 없음도 알지 못하는데 허물며 생사 없음을 체득하겠으며, 생사 없음에 결합하겠으며, 생사 없음을 활용하겠는가. 그러므로 생사를 인정하는 자는 생사가 없다는 법을 불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김원각(시인·역경위원)

據此經文 信知達悟圓覺眞心
거차경문 신지달오원각진심
本無生死 今知無生死
본무생사 금지무생사
而不能說生死者 功夫不到故也
이불능탈생사자 공부부도고야
故敎中說 薩婆女
고교중설 삼바녀
問文殊云 明知生是不生之法
문문수운 명지생사불생지법
爲甚麼被生死之所流 文殊云

황토 집 (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중종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결”인 것입니다.



원하시는 평수대로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현장 방문 환영!! 황토집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017)585-6045/ 017)566-9969/ 017)582-7116

통도사 화합과 수행가풍의 회복을 위한 모임
가칭 '화·수·회' 창립 발기 준비 모임

원용살림을 통한 통도사의 민주화 및 한국불교의 수행·포교의 중심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본사 재적승의 뜻을 결속하는 가칭 '화·수·회' 창립발기 준비모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543(1999)년 4월 23일 5시
- 장 소 : 조계사 산중다원
- 연락처 : 051)505-8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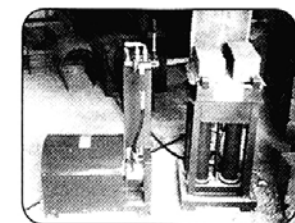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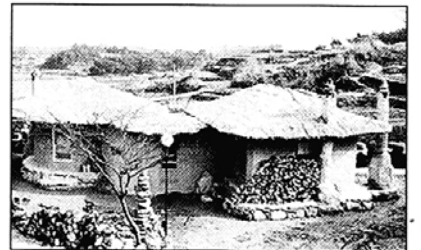
불기 2543년 4월

가칭 '화·수·회' 창립 발기 준비위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상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x14x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맨진사용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모델 A: ₩3,800,000
모델 B: ₩4,300,000

- 황토 관련 전문 회사
- 황토 마을 예선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월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